

걸프전쟁과

나를 화나게 한 어느 신문사설

洪 起 斗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행정사무관>

지난 2월 1일자 서울경제신문의 사설만큼 걸프사태 이후 나를 화나게 한 것은 없다. 사설 요지는 정부가 걸프사태 이후 전망

을 잘못 해서 작년 말부터 고가 원유를 많이 도입하게 했고 이로 인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특히, 日本등 선진국들

은 그 기간 중 원유도입을 자제했다는 점까지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전문가들이 정책수립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 집필자의 예리한 원인 분석이다.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논쟁의 대부분이 논쟁 당사자가 서로간의 입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울경제신문 사설 (2.1)

석유정책의 실족

“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철저히 하라 ”

「걸프전쟁이 일어나면 原油價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이에 따라 우리는 연간 수십억달러의 外貨를 더 지불해야 함으로 정부와 精油社들은 가능한한 원유를 더 사들여 비축하고 국내 油價도 인상하여 이에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었는데 이와같은 專門家의 예측마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28일 動資部의 한 고위당국자가 방송에 나와 자기 잘못에 대한 하등의 부끄러운 감정도 없이 설명한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한심한 발언이었다.

油類의 需給과 價格은 우리 국민경제와 생활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요인으로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것인데도 이를 잘못 다루어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그만큼 국민 부담을 가중하였는데도 그것이 마치 天災地變과 같은 外部與

件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정부측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나 죄책감도 느끼고 있지않다는 우리 정부의 한심한 자세를 엿볼 수 있어 분개심마저 든다.

세계 石油시장의 여건으로 보아 걸프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원유가는 10달러까지도 하락할 것이며, 걸프사태가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군이 단시일내에 전쟁의 機先을 잡을것이므로 원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된다 해도 곧 하락하여 단시일내에 정상가격으로 되돌아 갈 것이므로 정부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앙등된 비싼 원유를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사들이는 뽀를 범하지 말고 당분간 유가가 정상가격으로 하락할 때까지 備蓄해 놓은 석유를 방출해 쓰고 나중에 유가가 하락하면 싼값으로 사서 다시 비축하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에너지專

門家(뉴욕주립대교수 張榮植 박사)의 판단과 정부에 대한 건의가 신문에 발표된 바도 있다.

動資部의 「자칭 專門家는 세계 石油價의 전망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資料와 정보에 의하여 얼마만큼의 조사와 연구를 하여 그렇게 석유가가 앙등한다고 판단하였는지 묻고 싶다. 전문가가 알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일수는 없다. 전문가로서의 資質과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열심히 하여야 진실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79년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세계의 석유매장량과 OPEC의 가격조작정책등 석유수급과 가격형성의 제반여건과 그 작용등에 대한 깊은 조사와 연구도 없이 「자칭 專門家」들로 구성된 「정부의 긴급원유확보위원회」로 정유사들은 원유시장거래사상 가장 비싼

정책당국의 표정

의견 교환으로 발생된다. 특히 과정을 도외시한 채 결과만을 놓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나쁜 습관들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많고, 듣는 사람들도 과정을 설명들을 여유가 없다. 이런 여건하에서 상대방 입장을 밝힐 기회의 균등을 제도적으로 봉쇄시킨 후 상대방을 철저히 몰아 부치는 방식이 설익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와의 논쟁에서 승리하는 한국판 손자병법이다.

지난 연말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시한이 정해지고 관련국들이 서로 강경한 방향으로 치달을 때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대비한 석유 확보에 나섰다.

日本の 경우도 서울경제 시설

집필자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지난해 10월 1억2천만 배럴의 원유도입량을, 11월 1억3천만, 12월에는 무려 1억5천만배럴로 늘렸다. 그 당시 日本의 원유 도입 단가를 보면 10월 30.39 \$ / B, 11월 34.14 \$ / B, 12월 32.77 \$ / B로 모두 30 \$ / B이 넘는 수준이다. 어려운 데이터를 제시 않더라도

가격인 42~43달러로 원유를 다량구입하여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었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이 손실을 국민이 부담한 石油特別基金에서 정유사들에게 보상해 줌으로써 결국 우리국민이 이를 몽땅 부담케 하였던 것이다.

이번 걸프사태를 당하여서도 정부는 이와 똑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여 우리 국민경제와 석유소비자들에게 또다시 큰 손실을 입힌 것이다. 즉 지난해 걸프사태가 발생하여 걸프전쟁이 발발할 때까지의 사이에 우리가 도입한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약27달러나 된다. 그런데 지금의 원유가는 어떠한가. 배럴당 13.45달러(우리가 주로 구입하고 있는 아랍重質油의 지난 28일의 FOB가격)로서 우리가 그동안 구입한 평균가격 27달러의 절반도 안된다.

우리가 하루에 약 90만배럴 이상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으

니, 그 손실액이 얼마인가 알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걸프사태(또는 産油國들의 일시적인 가격조작)와 같은 일시적인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1조원 이상의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여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값이 오른 「비싼 석유」를 사지 말고 비축석유를 사용하고 유가가 지금같이 하락하면 그때 「싼 석유」를 사서 소모한 비축분을 채워놓도록 하여야 마땅하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비싼 돈을 들여 석유는 왜 비축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전문가」인 정부는 정반대로 비축석유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도 비싼 가격에 더 사들이는 방향으로 잘못하여 우리는 또 한번 큰 손실을 입었던 것이다.

현재 세계의 석유확인배장량은 1조배럴이상이며 이는 현재

전세계가 연간 2백20억배럴을 사용하고 있는 양으로 환산하면 50년간의 사용량이다. 그리고 걸프사태이전에 OPEC는 그 생산량을 축소시키지 못하여 石油價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걸프사태로 하루 4백30만배럴에 이르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수출이 중단되었는데도 다른 産油國은 이를 쉽게 보충생산하고 있으며 오히려 생산과잉이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걸프사태가 해결되어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다시 정상적인 석유수출을 한다면 공급과잉으로 석유가는 하락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당분간 걸프전쟁이 계속된다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태의 돌발로 일시적인 석유가의 앙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와같은 현상은 오래지속될 수 없을 것이므로 석유가의 폭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정부에 두가지 당부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모든 분야에 있어 「진실한 専門家」를 배치하고 양성하여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정책수립과 운영을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좀더 깊은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둘째, 石油事業基金('86년부터 5조5천억원정수)이나 貿易特許資金(90년에만도 5백40억원정수)등 국민(國會)의 동의나 간섭을 받지 않고 방만하게 不實사용되고 있는 숨겨진 準租稅를 정수하지 말고 필요하면 정당한 租稅로 정수하기 바란다. 그리고 기왕에 정수한 석유사업기금은 유가인상의 요인이 있을때 풀어서 유가를 억제함으로써 그것을 미리 부담한 국민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없으며, 그것도 수 개월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는 더 더욱 불가능하다.

이 글의 요지가 오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日本이 높은 원유가하에서 원유를 도입한 만큼 우리의 원유도입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결코 아니다. 서울경제사설 집필자는 비싼 원유를 사는 대신 비축원유를 사용하여 원유도입 비용부담을 줄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제를 실험대상으로 해서

는 안 된다. 정책결정자들을 Risk Taker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잘못될 경우 장·차관이 물러난들 그 잘못을 해결할 수가 없다. 지난 2월 1일자 서울경제 사설 집필자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그동안 우리의 대응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Risk Taking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주장한다. 당신은 왜 작년 연말에 전쟁이 발발하면 유가가 폭락할 것이란 고견을 사실로 못 썼는가?

심야에 복무점검나온 감사관(감사원)에게 인간체력의 한계를 들어 팔자를 하소연해야 했던 제3의 모씨등등.

우리의 행위가 나름대로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에 정열의 몸뚱이로 해쳐나온 우리들의 행위가 훗날 좋게든 싫게든 비판의 도마위에 올려지리라.

그러나 오늘 일요일 근무인 우리들의 오늘 시커먼 신문이 그 비판의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

「원유가격 판단착오에 의한...」

한 나라의 정책이 어찌 모험일 수 있으리. 더구나 4천만의 겨울을 책임져야할 성질의 정책이 어찌 한쪽 얼굴에만 반해서 솔깃할 수 있으리.

더욱 아직 총소리는 그치지 않았는데.

이래저래 내일 또한 숨가쁜 하루가 될 터이지만 과히 기분나쁜 팔자는 아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충혈된 눈으로 기름진 땅 만들자고 부산을 떠는 아침을 나도 함께하는 것이므로.

덜 정리된 짧은 글을 마치며 다소 낮뜨겁지만 꼭 남기고 싶은 말.

「'90년 8월부터 이 글을 쓰는 '91년 2월까지, 어머니의 자식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시다!」

한 나라의 정책이 어찌 모험일수 있으리

용 영 준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토요일 오후!

오랫만에 참으로 오랫동안 우아한 토요일 오후를 갖는다. 옛그제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아 미끄러운 관악산을 넘어서, 무지하게 비싼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또한 아직 사무실에 남아 걸프대책을 다듬고 있는 잔류병력에게 다소 미안한 마음도 가지면서. 요새는 시간이 빠르다.

가파르게 지나쳐온 작년 여름 이후를 되살릴 것도 없이 세월은 잘도 가버렸다. 문득 지금이 '91년 하고도 2월인 것을.....

지난 여름 걸프사태 발발이 담긴 텔레스크를 확인하던 바로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지독한 여름과 가을

과 겨울의 시작이었던 듯하다.

단계별 시나리오, 유가구조 조정과 그 비난, 일찍이 경험한 바 없는 석유수입 손실보전, 그리고 등등으로 밤을 잃은 많은 날들이 흘러갔다. 그리고 이제는 그놈의 총성이 더욱 드세어질 기세다.

관악의 정상에서 심호흡을 한다. 그동안 잊고 지나야 했던 싸아한 늦겨울의 냄새가 코를 만지며 달아날 즈음, 지난 시간을 돌이키지 않을 수 없다.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창백해져 그야말로 이름을 밝히기를 조심하지 않으면 아니될 모씨, 최근들어 쌍시옷의 빈도가 증가된 평생 점잖은 입(口)의 소유자인 또 다른 모씨,

걸프사태의 와중에서

신 성 철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화공기좌>

아직도 걸프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치도 않은 지금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 보고 유유자적한 뒷얘기를 건져내려니 조금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다. 지난 '90년 8월 2일 예기치 못한 기습적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91년 1월 17일 전쟁 발발까지 약 6개월동안 어느 기자의 얘기대로 오랜만에 찾아온 장날의 북새통이 아니었나 싶다.

지난 '79년 이란회교혁명으로 야기된 제2차 석유파동기를 겪어본 필자로서는 10여년이 지난 후 다시 닦쳐온 금번 걸프사태와 비교시 여러 모로 큰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비축을 첫째로 들고 싶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만약 현재에 비축이 없었다면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뒷골이 오송하다. 무얼했을까? 원유확보를 위해 자원의교를 펼쳐야 한다니, 가격은 따지지 말고 물량부터 잡아야 한다니, 몸살도 심한 몸살을 앓았을게다. 몸살을 한다 해서 효과가 있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동안 우여곡절을 무릅쓰고 약 1조여원의 투자로 마련한 비축은 지금 톡톡히 그 값을 치르고 있다고 본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응정책은 한마디로 비축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게다.

걸프전쟁이 일어나던 1월 17일은 소위 에너지전문가들에게는 말문을

막은 꼴이 되었다. 치솟으리라던 국제석유가격은 오히려 폭락세를 보였고, 사우디아라비아등 유전 및 석유공급시설의 피해로 원유수출이 중단되리라는 예측이 전혀 빗나가 현재까지 원유수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수한 세계 에너지전문기관의 면목을 실추시킨 이러한

사태전개를 보며 언젠가 윌리엄 호겐이 얘기한 바 있는 원유가격 전망자체의 불확실성을 또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어쨌거나 전망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처지에서는 이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의 차질이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조만간 걸프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대문짝만한 뉴스를 접하게 되길 고대한다. 그래서 목뒤에 쌓인 긴장을 풀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걸프전쟁 희망사항

李 鍾 鎬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실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시장 바닥같이 널부러져 있는 사무실, 방송국 스튜디오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생방송 현장, 전화걸어온 민원인에게 사정 또는 이해를 구하는 직원들의 진땀, 관계기관의 협조 요구에 손발이 떨리는 곤혹스러움 이 모든 것이 걸프전쟁 발발직후 일어난 우리 사무실의 풍경이었다.

우리는 8월초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걸프사태에 대한 각종 대응책 마련과 회의자료 준비, 토의, 밤샘등 6개월여 동안 전쟁발발에 대비한 빈틈없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왔다. 그동안 美國의 오포와 이라크의 허풍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온(?) 전쟁이 1월 16일 美國의 바그다드 폭격으로 개시되면서

우리 자원정책실에는 때아닌 태풍이 몰아 닦쳤다. 그 태풍의 핵은 역시 전쟁대비 마스터 플랜속에 들어있던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실시와 걸프전쟁 직후 일주일여 동안의 등·경유 아우성 이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실시가 발표되면서 화물차는 어떻게 되느냐. 제조업체의 통근버스는 면제해 달라, 31일이 들어있는 달에는 끝자리 번호가 1인 승용차는 피해를 받지 않느냐.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10부제 실시로 절약되는 효과를 가르쳐 달라는등 온갖 협박과 회유와 사정의 전화로 전화기를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이 생길 정도였고 문서로도 협조요구가 빗발쳤다. 등유·경유 아우성은 또 어떤가. 민생유류 파동에 대비해서 우리

는 비축 등유·경유를 정말로 시의 적절하게 방출 결정을 하고 K-1 부터 방출을 시작했고, 소비자 불편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불편신고를 해결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수요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았다. 이번 소비자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보면 등유·경유문제는 완전히 가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우리가 비축유 방출이라는 효과 좋은 영약을 처방한 결과에도 기인하겠지만 그 빗발치던 불편신고가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딱 끊긴 것으로 보아 가수요 때문에 생긴 것이 확실하다. 석유 안판다는 신고전화를 받으면 「지금 비축석유를 무제

한 방출하고 있으니 하루이틀만 참으시면 다 해결됩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는데 걸프전쟁발발 2주일 후에는 비축유를 방출할 필요조차 없어져 버렸다.

하여간 걸프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신문·TV·라디오등 방송을 타는 것도 좋지만 계속되는 밤샘근무로 감기몸살도 걸리고 사무실에서 계속 저녁밥먹기도 짜증이 나고 돈도 없고, 날짜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이거야 윈 어디 정신이 없어서 못살겠다. 가족과 단란하게 된장찌개 저녁 먹는 셀러리맨의 작은 바람이 회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걸프전쟁아 빨리 끝나라!... ..

스크린에 몰두한 듯한 짧은 쾌감에 빠지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불이 난 듯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는 나에게 석유의 안정수급을 담당하는 동력자원부 조직의 한부분임을 알려 주었고, 비상수급 상황실로 달리게 했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민의 불평과 질책은, 오래 전부터 고유가 시대와 수급 위기에 대비해 차분히 마련해 온 여러 시책들이 하루이틀에 쓸모없는 案이 될 듯한 위기감을 주면서 마음을 짓누르기도 했다.

이제 저쪽의 전쟁이 발발한 지도 한달이 지났다. 국내 석유수급 상황도 아직은 불안하지만 일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도 군의료진을 파견하고 전비를 충당하는 등, 싫든 좋든, 석유확보를 위해 직접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아직 뚜렷한 전망도 없다. 다만, 차분히 대처할지도 모를 더 큰 위기에 대비해야겠다.

국민도, 정부도.

개발되지 이제 100여년 조금 넘었으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편의를 주고 있는 석유. 정비석선생이 금강산 자락에서 여정에 취해 남포불 심지 돋우어 밝히던 그런 수준의 석유가 아닌데도.

이 노래를 함께 하고 싶다.

‘손불 허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아해야, 탁주산채일망정 없다말고 내어라’ 관솔불도 싫어 달빛으로 익은 술결러 마시던 그때가 그림자. 지나친 감상이지만.

솔불 허지마라

박 회 태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겨누는 칼이 찌르는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실감나는 몇달이었다.

지난해 8월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 막바지에 터진 걸프사태는 이제까지 우리 목을 겨누는 칼끝으로 남아 있다. 굶은 날만 되면 관절이 저린 신경통 환자처럼 앓으면서 국제 석유시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 점령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협박한 일이 없다. 더욱이 총칼을 겨누는 적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앓으며 지내야 한다. 세계 석유의 대부분이 그곳에 있고 우리

는 대부분의 석유가 있는 그 중동 땅에서 또 대부분의 석유를 챙겨야 하는 입장이니.

「1월 16일, 백악관의 이라크 전면 공습 공식발표, 그리고, 걸프전쟁 비상대책반 강화」

그날 이런 말들은 호외에 실린 표제 활자보다도 더 과장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내게 찾아온 것 같았다. 전선에 구축된 야전 천막속에서 긴장으로 걱정을 살피는 착각에 빠질 정도의 진지함 속에서도 CNN보도로 전달되는 그날 아침의 대규모 공습소식은 그것이 낮과 밤이 다른 지구의 저쪽에 있다는 생각에 한편의 재미난 전쟁영화